

광주, AI 실증도시 본격화... 일자리 위협 속 신직종 등장

광주 전역 AI 실증 플랫폼 추진
자율주행·의료·행정 실증 확대
기술 확산에 일자리 축소 우려
반복업무·운전직 변화 본격화
AI윤리·데이터 신직종 부상

‘국가AI데이터센터’ ‘국가신경망처리장치(NPU)컴퓨팅센터 유치 추진’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 등 광주가 인공지능(AI) 무대로 주목 받고 있다.

동시에 광주의 인공지능 실증은 미래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의 발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관계가 형성될지를 가능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관계기관이 광주 도심 전역을 인공지능 기술 상시 실증·검증하는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기



11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설치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 미래차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존의 공정 방식을 전환(AX)할 수 있도록 데이터·컴퓨팅·실증이 연계된 ‘도시 전역 상시 실증 플랫폼’ 구축 방향,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체계, 국가AI데이터센터·NPU컴퓨팅 기반 시설 활용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어 인공지능 실증·상용화 파급력이 큰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5대 생활밀착형 도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개선 과제

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AI 모빌리티 국가시험도시’와 연계해 규제 특화방향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그림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으로 성공여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차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박람회(CES 2026)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50kg을 들 수 있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제조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8년부터 현대차그룹 메타플랫폼 아메리카(HMGMA)에 우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아틀라스는 장기간 사용을 가정하면 인건비 대비 저렴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국내 공장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광주 도심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로봇) 차량 실증도 인간의 운전능력을 인공지능 기술이 도심의 다양한 도로환경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신규 상품개발 지원기업 모집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상품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도, 성주, 칠곡, 봉화 등 도내 13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5년 기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김해시

‘댕댕파크’ 반려동물 공원 조성

김해시가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을 열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가야테마파크 동측 어방동 984-2번지 일원에서 ‘김해댕댕파크’ 개장식을 개최했다.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1만 5412㎡ 부지에 조성된 이 공원은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휴게 공간, 관리 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개장식은 김해시립합창단 공연과 반려견 프리시비 퍼포먼스 등 식전 프로그램으로 시작으로 기념식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청년 주도 정책학교 운영

포항시가 청년 주도의 정책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포항 청년정책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청년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 참여 기반을 넓히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포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30명으로 선착순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30일 킥오프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6회에 걸쳐 포항청춘센터에서 진행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영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영양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분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교육청,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직업체험·데이터라벨러 과정 운영 유관기관 연계 현장중심 직무훈련

부산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실질적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유관 기관과 손잡고 맞춤형 직업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 체험 프로그램 ▲장애 학생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장애 학생 기관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요양 보호·사무 보조·서비스·

제조 등 10개 직종 직업 체험관에서 운영된다.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디지털 직무 수요를 반영해 기존 오후 3시간에서 30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확대했다. 특수학교 고등학교·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제·분류·표기 등 실무 중심의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병행한다.

‘기관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장애인복지관 등 21개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직무 기능 및 취업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을 우선 선발해 공공기관·일반 사업장 현장 실습을 거쳐 실제 취업까지 연계 되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군,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본격화

2028년 4월 시범운영·10월 준공 목표

해남군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축허가가 지난 3일 접수되어 건립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 SDS 컨소시엄은 3일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건축허가를 해남군에 접수했다.

위치는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1만 5,000평 부지 연면적 1만평 규모, 지진과 화재에 강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지상 2층의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이 들어선다.

군은 4월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 분야 도서 착수 및 구조 계산 등 후속 공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계를 마무리하고, 3분기에는 파일 및 토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28개월간의 공사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감도. /해남군

기간을 거쳐 2028년 4월 시범운영, 10월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건축허가에 앞서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3일 건축 인·허가 접수가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삼성 SDS 컨소시엄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이어왔다.

/해남(전남)=이태호 기자 eogh7505@

경북, 독도 현장중심 관리정책 본격 추진

2030년까지 4339억 투입 사업 추진

경북도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에 맞춰 독도의 실질적 관리주체로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총 4,339억 원을 투입해 과학조사와 연구협력 확대, 안전 관리와 편의성 강화,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65개 사업, 약 1,4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북도는 이에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울릉공항과 연계한 접근성 개선을 비롯해 주민 정주 여건과 안전시설 보완, 해양환경 보전 및 정화 체계 강화, 독도 교육과 홍보 확대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독도를 해양주권의 상징이자 동해 거점으로 보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TR 구미 대경본부 설립 협약.

구미, 배터리 시험인증 거점으로 뜬다

KTR 대구경북본부 7월 산단에 설립

경북 구미에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바꿀 국내 최대 배터리 시험인증기관이 들어선다.

지난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R은 1969년 설립된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 법인이다.

시험평가, 국내외 인증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분야 시험인증기관이다.

연간 3만여 기업과 기관에 47만건의 시험평가 및 국내외 인증 업무를 수행

한다.

이번 협약은 KTR 대구경북본부를 구미에 설립하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본부는 7월 구미1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며 약 5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대구경북본부는 금속소재부품, 재사용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접수부터 시험·성적서 발급,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과 연구기관 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jon@